

##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귀로 되었는가? (런재 2)

사탄신도들의 생명에는 마성이 가득 찼다



마르크스신도들의 행동이 유달리 신비한것은 사탄교의식과 많이 관련된다.

사탄교에는 “흑색집회”라는 제사식이 있다. 제사사가 컴

컴한 야밤에 두루마기를 뒤집어쓰고 검은 초롱을 꺼꾸로 놓고 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망라하여 전도된 순서로 기도서(禱書)를 읽는다. 그다음 꺼꾸로 세워놓은 십자가를 발로 밟고 교회당에서 흠쳐온 성기(聖器)에 사탄이름을 새기고 성경을 태운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천주교 교의 7 종죄를 범하고 영원히 좋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나중에 미친듯이 환호한다. 사탄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올바른 의식(儀式)을 전도했고 공산사교는 거짓말로 시비를 전도하며 폭력투쟁을 하여 인성을 훼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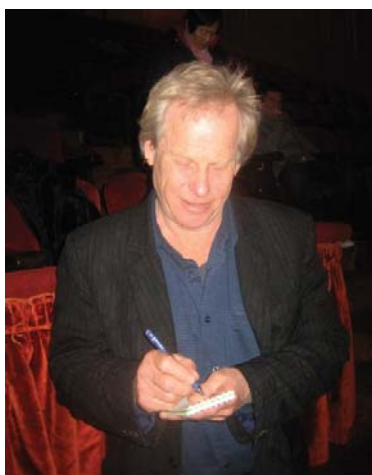
마르크스는 18 세때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 대한 불신임과 고통, 폭란을 기초로 마왕이 되겠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전 인류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저주하며 이 세계를 철저히 소멸하겠다.》 사탄의 신도로 된 마르크스는 매우 싸우기를 즐겼다. 그는 늘 《세상에 적을 씹어삼키는것보다 더욱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 아들이 1854 년 3 월 21 일에 부친에게 보낸 편지의 첫머리에 《나의 친애하는 마귀》라고 써서 사람들을 놀래웠다. 한 아들이 어찌 이렇게 황당한 방식으로 자기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탄교신도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불렀다.

사탄교신도들의 사생활은 극히 자사자리했고 란폭했는데 마르크스도 레외가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녀 노복의 무상로동을 착취했음뿐만아니라 그녀를 강박하여 사생아를 낳게 했다.

사탄을 경계하던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마귀의 부체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나중에 사탄마귀의 흡인력과 유혹에 못이겨 마르크스를 찬미한 합작자로 룬락되어 공동히 마귀를 위해 싸웠다. “공산당선언”에서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소멸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도덕을 소멸하는것이다.”라고 썼다. (다음호에 계속)

### 《신운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2010 년 12 월 30 일 저녁, 미국 저명한 피아노연주가이고 가수이며 작사가인 헬만 이빠리트즈스츠는(옆사진) 샌프랜시스코 가극원에서 신운뉴욕에 술단의 공연을 보고 나서 《신운은 미래를 열수 있는 열쇠이다. 미래를 알려

면 당신은 반드시 지난날을 알아야 한다. 신운은 미래를 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신운은 최고경지의 걸작이다》

2010 년 12 월 29 일 밤, 극장공연집행 총감독이며 공연제작자인 안니 제미손은(옆사진) 미국 시애틀 매코극장에서 신운국제에 술단의 공연을 보고 나서 《신운공연은 절대적으로 최고경지의 걸



작이다. 음악, 무용, 조명, 음향 등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경탄케 한다.》라고 말했다.



헌 법원회의실에서 년말총결회를 소집했다. 사무실 정주임이 주최했는데 옛 습관대로 첫번째 발언은 오서기이고 두번째 발언은 허원장이며 그다음은 ..... 어느덧 세시간이 지났다. 마지막으로 쇼재판장의 발언이 끝나자

정주임은 《전임 원장님께서 발언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녀는 명실에 부합되는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30 여년동안 정법사업에 종사하였다. 90년대초에 재판장으로부터 부원장, 원장으로 승급했다. 이 법원 100 여명 직원들중에서 그녀만이 전국 공안국, 검찰원, 법원계통 통일시험에 참가하여 법관, 검찰관, 변호사증서를 취득했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북경에 상방했다는 리유로 체포되어 로교소에서 모진 혹형과 시달림을 받았다. 원 단위로 돌아온후 응당 철직되고 해고당해야 했지만 법관증서가 없으면 안건을 처리할수 없어서, 법관증서가 있는 그녀를 원장으로부터 재판장으로 등급을 낮추어 사용했다.

뒤줄좌석에 앉은 그녀는 일어서며 오른손으로 흰 머리카락을 빗어올렸다. 사람들은 모두 뒤돌아보며 박수를 쳤다. 그녀는 온건한 걸음으로 주석대에 올라가 강연석에 앉은후 마이크에 대고 담담하게 한마디 말했다.

《난 수련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꺼리키는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은 쥐죽은듯 조용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강의를 들으려 했다. 그녀는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공경히 경의를 하고 나서 몸을 돌려 주석대아래로 걸어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꿈속에서 금방 깨어난 것처럼 삼시간에 장내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어떤 사람을 일어나서 그에게 더 강의해달라고 청구했다. 정주임은 약삭빠르게 즉시 따라가서 그녀를 주석대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그녀는 대중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한마디 보충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검거적발하십시오. 마음에 꺼리는 일을 한가지라도 발견한다면 조사증실을 한후 장례금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되돌아보지도 않고 원 제자리에 가 앉았다. 장내의 전체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힘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녀는 부득불 몇번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경의를 드렸다. 주석대에 앉은 현정법위원회서기는 법원지도자들의 귀에 대고 말했다.

《참 탄복하지 않을수 없군.》

## 터키민중들이 “뽀싼런미술전람”을 찬양



지난 1 월 1 일부터 7 일까지 “뽀싼런미술전람회”가 터키 이스탄불 시에서 소집되었다. 미술작품에서 펼쳐보인 파룬따파

의 아름다움과 파룬따파수련생들이 박해속에서 표현된 대선대인(大善大忍)정신은 터키관중들을 감동시켰으며 대중적인 찬양을 받았다.

2004 년부터 오늘까지 40 여개 나라와 지역의 “뽀싼런국제미술전람회”에서 200 여차례나 전시된 미술작품들은 모두 파룬궁수련생들이 창작한 것이다. 이 미술작품들은 진실한 예술수법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의 파룬궁진상을 서술했다.

## 리극강 독일 방문 파룬궁학원들 박해를 항의

지난 1 월 7 일부터 8 일까지 중국부총리 리극강이 독일 베를린과 뮌헨을 방문할때 파룬궁학원들이 베를린 중국령



사관앞과 뮌헨 바이에른주정부 맞은켄에서 중공이 11 년동안 파룬궁수련생들을 잔혹하게 박해한데 대해 항의했다.

독일국제인권조직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아주 중시하고 있다. 뮌헨분회 책임자 티라크선생은 《국제인권조직에서 한 보고에서 보다시피 지진피해를 받은 재난민, 일당독재통치, 경제방면에서만 세계로 개방 등 인권방면에서 중국은 개선이 없다.》라고 말했다.